

書 評

중국을 만든 문장들

- 원문으로 만나는 고전 명작 52편 -

김근 엮고 옮김.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22.7.20.

신국판 변형 양장 631쪽.

제 해 성*

지난여름 어느 날 연구실로 두꺼운 책 한 권이 부쳐왔다. 필자의 대학 은사인 김 근 선생님께서 엮고 옮긴 신간 《중국을 만든 문장들》(원문으로 만나는 고전 명작 52편)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감사 인사를 드릴 겨를도 없이 머리말부터 목차까지 살펴보고 단숨에 수십 쪽을 읽어 내려갔다. 그간 중문학을 전공하며 한두 번 읽었거나 여러 번 읽어 그 내용을 익히 알던 문장도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문장도 적지 않았다. 모든 문장의 원제목 앞에 달린 참신한 우리말 제목이 문장의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어 역시 선생님답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으니 40여 년 전 법학전공을 포기하고 낯선 중문학을 선택하여 처음 수강한 선생님의 ‘중국 문자학’ 강의가 떠올랐다. 許慎의 《說文解字·敘》를 한 글자 한 문장씩 쫓아가며 배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 계명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에서 이병한 교수의 지도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 미국 버클리대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고,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교수로 정년퇴임을 했다. 재직 시절에는 주로 중국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특히 권력으로서의 문화에 관한 논문과 책을 많이 썼다. 지금은 서울 노원교육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사회봉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한자는 어떻게 중국을 지배했는가》(민음사), 《욕망하는 천자문》(삼인), 《한시의 비밀》(소나무), 《한자의 역설》(삼인), 《예란 무엇인가》(서강대 출판부), 《유령의 노래를 들어라》(서강대 출판부), 《천자문은 힘이 세다》(삼인) 등이 있으며, 역서로 《설문해자통론》(계명대 출판부), 《여씨춘추 역주》(민음사)가 있다. 이 가운데 《욕망하는 천자문》과 《천자문은 힘이 세다》의 권말에는 필자가 쓴 〈천자문 해제〉가 달려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문학은 3,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인 《詩經》의 일부 시는 西周 초인 기원전 11세기경에 지어졌다. 서구 문학도 역사는 오래지만, 그 전통이 부단히 변화하였다. 그러나 중국 문학은 전통이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식이 부단히 출현하고 한 번 출현한 장르는 원칙적으로 소실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중국인의 세계관이 깔려 있다.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에서 문학을 인류 보편의 처지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려는 문학관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수천 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치면서도 문학의 형식은 물론 내용과 문학사상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春秋戰國時代에는 수많은 사상가가 출현하여 세상을 경륜할 자신들의 사상을 내놓았는데, 이들을 흔히 諸子百家라고 부른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상호 대립적인 입장에서 중국 문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儒家와 道家이다. 유가는 중원의 북방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현실을 중시하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며 창작을 부정하고 계승과 복고를 중시하여, 허구와

상상을 해야 하는 純文學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유가는 그들의 이상인 德治와 禮敎의 실천을 위하여 禮樂을 중시하였다. 즉 예를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다스리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악으로써 인간의 性情을 교화하여 세상의 조화를 이루려 하였다. 그래서 孔子는 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시의 사회 교화를 위한 효용성을 중시하였다. 중국 문학이 현실주의 경향을 지향하는 점과 이전의 문학에서 典範을 찾으려는 복고적 경향을 견지하는 것은 이러한 유가 사상의 영향이다. 전국시대에 남방에서 생겨난 도가 사상은 인위적인 기교를 부정하고 無爲自然을 중시한다. 따라서 문학의 독창성과 진화를 부정하는 유가 사상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었다. 여기에다 道敎의 신선 사상과 불로장생의 추구는 유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환상과 허구를 가능하게 하여 중국 문학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東漢 때 수입된 佛敎도 도가 사상과 같은 측면에서 중국 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고전은 모두 이러한 文·史·哲 배경 속에서 생겨난 문학 유산이다. 魏의 文帝 曹丕는 “문장은 국가를 경영하는 불후의 성대한 사업(文章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典論·論文》)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문학의 위상을 드높였고, 작가의 천성·기질·재능이 문학 작품의 風格을 형성한다는 文氣說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국을 만든 문장들》은 이러한 유구한 중국 역사 속에서 나온 경서·역사서·사상서와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빼어난 문장, 제일 중요한 대목 52편을 가려 뽑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의 편집자(엮고)와 번역자(옮김)의 역할을 충실히 겸하고 있다. 중국의 역대 문장 중에서 저자가 가려 뽑은 52편의 작품에 대해 먼저 문장의 성질과 내용 및 저자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해제를 달고 있다. 이어서 작품의 원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원문에 나오는 어휘와 구절들을 우리말로 친절하게 풀이해준다. 그런 다음 원문을 정확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한문 독해력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 독자라면 저자의 수고에 힘입어 중국 고전 명작의 원문까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고,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문장의 원문과 어휘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겨놓은

이 책을 큰 어려움 없이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개인을 만든 것도 그들의 언어 작품들이다. 역대의 시인들과 문장가들이立言한 작품을 개인들이 읽고 공유하면서 중국의 문화는 형성돼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을 심도 있게 알려면 그들이 즐겨 읽는 작품들을 읽어야 한다.”라고 중국의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나아가서는 “중국의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서양 고전을 읽는 것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다시 말해 고전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근원과 아울러, 저변에 녹아 있는 보편주의적 사고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중국의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의의를 강조한다. 특히 고전의 번역에 대해서 “글쓰기란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생명이라서 예술로 정의한다. 그래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예술을 파괴하는 행위이니, 비유컨대, 노래할 때 멜로디는 빼고 가사만 읽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작품을 읽으면서 ‘이게 왜 명작이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번역은 언어의 예술성을 빼버린 부득이한 행위라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어찌 보면 훌륭한 번역은 오히려 직역 투가 원어의 어감을 살린다는 점에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문장이 거칠어져서 읽기가 난삽하다. 따라서 번역은 이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작업의 어려움과 그 과정의 고충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중국을 만든 문장들》에 실린 고전 명작 52편은 저자가 “중국을 만든 텍스트라는 데 방점을 두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을 가려 뽑은 것이다. 작품의 생산 시기도 《시경》의 《毛詩·序》부터 북송 문인 張耒가 《新五代史》〈郭崇韜傳〉을 읽고 쓴 〈書五代郭崇韜傳後〉까지 한정하였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품격있는 문화는 사대부 문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漢과 魏·晉 시기에 기초가 닦이고 唐·宋 시기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책에 실린 중국의 고전은 유가 경전인 《詩經》, 《周易》, 《春秋左傳》, 《大學》, 《中庸》, 《論語》, 《孟子》와 先秦 諸子書인 《道德經》(《老子》), 《莊子》, 《荀子》, 《韓非子》, 그리고 兩漢부터 北宋까지 賦, 駢文, 散文 중의 대표적 명문이다.

작자는 사상가 孔子·孟子·老子·莊子·韓非子, 역사가 司馬遷, 시인 屈原·陶淵明·李白, 당송고문가 韓愈·柳宗元·歐陽修·王安石·蘇軾·蘇洵 등 중국 역대 명문가를 망라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려 뽑은 《시경》의 周南 〈關雎〉편 등 시를 포함한 역대 문장은 중국 고대 전통 산문 문체의 범주를 초월한 광의의 문장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중국 고대의 문장은 論辨, 序跋, 奏議, 贈序, 詔令, 傳狀, 碑誌, 雜記, 箴銘, 頌讚, 遊記, 傳記 등의 역대 산문을 가리킨다. 특히 唐代 이후 이른바 古文은 전형적인 전통 산문을 일컫는다. 이러한 고문에는 문학 작품도 포함하지만, 비문학 작품인 역사·철학·정론 문장도 포함한다. 중국 고대에는 東漢 이래로 ‘文’과 ‘筆’의 문체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劉勰의 《文心雕龍》부터 중국 고대의 문체와 그 분류 방법을 연구한 역대 문체론 관련 저작은 대부분 문체를 ‘문’과 ‘필’로 이분하였다. ‘문’과 ‘필’은 주로 작품의 언어특징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각종 문체의 작품을 그 언어의 운율 유무에 따라서 ‘有韻之文(韻文)’과 ‘無韻之筆(散文)’로 나눈다. 이는 《文選》에서 특히 주의한 ‘純文學’과 ‘非純文學’의 구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蕭統은 《문선》을 책임 편찬하며 먼저 經·史·子부의 문장을 철저히 배제하고, “깊이 있는 내용과 아름다운 수사 형식의 조화를 이룬(沈思翰藻)” 詩文에 한정하여 작품을 뽑아 수록하였다. 내용과 수사 형식의 조화를 문학의 특성으로 인식한 소통은 문장이 華美하고 聲律을 중시하는 楚辭와 漢賦 및 魏·晉 六朝 이래의 駢文을 집중하여 수록하였다. 唐·宋 이후 문인 학자들의 문장 선집은 주로 고문에만 치중하거나 아니면 변문이나 운문에 치중하는데, 이 때문에 전면적인 選文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 책은 《문선》과는 달리 先秦 시기 經·史·子の 명문과 兩漢 이래로부터 北宋까지의 부, 변문, 산문 작품을 두루 가려 뽑았다.

국내에는 전통적으로 중국 역대 名詩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지만, 역대 名文을 가려 뽑아 소개한 책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찍이 중국에서 들어온 《古文眞寶》(특히 後集)의 오랜 기간

유행과 經·史·子·集의 다양한 역주서 출판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다. 宋末 학자 黃堅이 중국 역대 시문을 모아 엮은 시문 선집 《古文眞寶》(원명 《詳說古文眞寶大全》)는 17세기 중엽 이전 중국과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 뒤로 중국에서는 점차 독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유실되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인들의 필독서가 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20권 10책으로 된 이 책은 戰國時代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의 시문을 전집과 후집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전집은 소박하고 고아한 고시를 주로 수록하였고, 후집은 辭·賦類, 說·解類, 序類, 記類, 箴·銘類, 文類, 頌·傳類, 碑·辨類, 表類, 原·論類, 書類 등 17체의 산문 명문을 실었다. 《고문진보》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위는 자세하지 않지만, 《野隱逸稿》의 일부 기록에 근거하면 이미 14세기에 국내에 들어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문진보》는 1420년에 《善本大字諸儒箋解》라는 서명으로 국내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1452년에는 《詳說古文眞寶大全》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다. 그 뒤로 復刊을 거듭하여 널리 유포되고 사용되다가 諺解本과 懸吐本이 간행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고문진보》의 ‘고문’은 특정 문체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대의 글’이라는 뜻이 강하다. 국내에는 조선 학자 息庵 金錫胄(1634~1684)가 100편의 중국 고문을 가려서 뽑고 언해를 한 고문 선집 《古文百選》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로부터 350년이 지난 오늘 중국 고전 명작 52편을 가려 뽑아 엮고 우리말로 옮긴 이 《중국을 만든 문장들》이야말로 ‘현대판 신 《고문진보》’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며 정치가인 에드워드 조지 불워리튼(Edward George Bulwer-Lytton)이 1839년에 쓴 사극 《리슐리외 추기경(Cardinal Richelieu)》에 나오는 “文은 武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푸틴(Putin)이 자국 러시아의 문학 작품인 푸시킨(Pushkin)의 시나 도스토옙스키(Dostoevski)의 《부활》과 《전쟁과 평화》를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무자비하게 파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국의 역대 군주와 국가지도자들

이 공자가 가르친 “君君, 臣臣, 父父, 子子”(《論語·顏淵》)의 禮儀를 알고 맹자가 주창한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孟子·盡心章句下》)의 仁義를 제대로 듣고 실천했다면 자국의 인민들을 냉혹하고 모질게 압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국의 고전은 수천 년의 세월과 그 세월을 지내온 중국인들이 빚어낸 수준 높은 문학 유산이다. 이 책을 읽으며 고전이 지닌 고루함이라는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숭고한 작업을 한 저자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과거의 선현들이 정신 수양과 立身揚名을 위해서 중국의 고전을 가까이하였다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문학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고전을 읽을 때이다. 고전의 문장 속에 숨어있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삶의 지혜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장점을 취해 우리의 단점을 보완함(取人之長, 補己之短)’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와 우리를 더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표방하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국제사회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무수한 현실적인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선현들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룩한 위대한 인생의 통찰인 고전을 읽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의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중국 고전 명작의 정수를 읽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찾아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실추된 인문 정신을 고취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불확실한 시대에 앞날을 내다보는 慧眼을 기를 수 있고,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국난을 슬기롭게 타개할 方策을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의 목차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학보 ‘서평’의 지면을 빌려 쓴 두서없는 글을 맺는다.

《중국을 만든 문장들》

- 원문으로 만나는 고전 명작 52편 -

목차

秦 나라 이전 시기

《詩經》의 저본 — 〈毛詩〉

시란 무엇인가 — 〈序〉

절제된 사랑의 노래 — 周南 〈關雎〉편

가지 늘어진 나무 — 周南 〈樛木〉편

漢水是 넓어서 — 周南 〈漢廣〉편

귀를 보아도 — 鄘風 〈相鼠〉편

문왕을 생각하며 — 大雅 〈文王〉편

빈둥거림 없는 나날 — 《書經》 〈無逸〉편

《周易》

易이란 무엇인가(1) — 〈繫辭上傳〉

易이란 무엇인가(2) — 〈繫辭下傳〉

《春秋左傳》

〈隱公 元年〉의 경문 “鄭伯克段於鄆”에 대한 전문

〈莊公 10年〉의 경문 “公敗齊師于長勺”에 대한 전문

〈僖公 5年〉의 경문 “晉人執虞公”에 대한 전문

〈僖公 30年〉의 “晉人秦人圍鄭”에 대한 전문

〈隱公 元年〉의 경문 “鄭伯克段於鄆”에 대한 전문

〈隱公 元年〉의 경문 “鄭伯克段於鄆”에 대한 전문

微言大義 — 《春秋公羊傳》 〈哀公 14年〉

예란 무엇인가 — 《禮記》 〈禮運〉편

《大學》 〈大學之道〉

《中庸》

《中庸章句》 제1장

《中庸章句》 제2장

《中庸章句》 제13장

《論語》

〈學而〉편

〈爲政〉편

〈八佾〉편

〈里仁〉편

〈公冶長〉편

〈雍也〉편

〈述而〉편

〈泰伯〉편

〈子罕〉편

〈鄉黨〉편

〈先進〉편

〈顏淵〉편

〈子路〉편

〈憲問〉편

〈衛靈公〉편

〈季氏〉편

〈陽貨〉편

〈微子〉편

〈子張〉편

《孟子》

오직 仁과 義 — 〈梁惠王章句 上〉 제1절

항산과 항심 — 〈梁惠王章句 上〉 제7절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 — 〈梁惠王章句 下〉 제8절

천시·지리·인화 — 〈公孫丑章句 下〉 제33절

큰 나라의 불의는 의롭다 — 《墨子》 〈非攻 上〉

老子, 《道德經》

《莊子》

여름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 〈逍遙遊〉

백정에게도 도가 있다 — 〈養生主〉

성인이 죽어야 도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 〈胠篋〉

차라리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니겠다 — 〈秋水〉

《荀子》

삼밭에 자라는 쭉 — 〈勸學〉편

임금은 배, 백성은 물 — 〈王制〉편

이름이란 무엇인가 — 〈正名〉편

선이란 가르쳐 만든 것 — 〈性惡〉편

《韓非子》

창과 방패 — 〈難一〉편

사나운 개가 술을 시게 한다 — 〈外儲說 右上〉편

옳은 말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 〈說難〉편

시혜와 형벌의 도끼자루 — 〈二柄〉편

秦의 부강이 누구 덕인데 — 李斯, 〈諫逐客書〉

창랑의 물이 흐리더라도 — 屈原, 〈漁父〉

兩漢

올빼미를 보며 — 賈誼 〈鵬鳥賦〉

장문궁의 슬픔 — 司馬相如, 〈長門賦〉

司馬遷, 《史記》

무엇을 위한 충절인가 — 〈伯夷列傳〉

관포지교 — 〈管仲列傳〉

홍망성쇠의 이치 — 〈高祖功臣侯者年表序〉

‘보이지 않는 손’의 발견 — 〈貨殖列傳序〉

蘇秦이 連橫을 획책하기 시작하다 — 《戰國策》 〈秦策〉

魏晉·南北朝

文이란 무엇인가 — 曹丕, 《典論》 〈論文〉

제 딱한 사정을 아뢰나이다 — 李密, 〈陳情表〉

술꾼을 칭송함 — 劉伶, 〈酒德頌〉

복사꽃 내를 따라 다녀온 이야기 — 陶淵明, 〈桃花源記〉

돌아가려다 — 陶淵明, 〈歸去來兮辭 並書〉

귀신이 도와야 술을 끊는다면 — 劉義慶, 〈劉伶病酒〉

북산의 신령이 띄운 공문 — 孔稚珪, 〈北山移文〉

봄을 즐기며 부른 노래 — 王羲之, 〈蘭亭集序〉

중국 최초의 문학 작품 선집 — 蕭統, 《文選》 〈序〉

시대를 앞서간 문학론 — 劉勰, 《文心雕龍》

진실과 修辭 — 〈情采〉편

사물은 언어로 만들어진다 — 〈物色〉편

〈강남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쓰기에 앞서 — 庾信, 〈哀江南賦序〉

唐代

임금이 늘 해야 할 열 가지 생각 — 魏徵, 〈諫太宗十思疏〉

남창의 누각이 모래섬을 내려다볼 때 — 王勃, 〈滕王閣序〉

봄밤의 잔치에 부쳐 — 李白, 〈春夜宴桃李園序〉

한형주 대도독께 드리는 서한 — 李白, 〈與韓荊州書〉

백락의 마구간에서 자라난 사람 — 韓愈, 〈爲人求薦書〉

굴뚝에 검댕 낄 틈조차 없이 — 韓愈, 〈爭臣論〉

재능도 알아보는 이가 있어야 재능이다 — 韓愈, 〈雜說 4〉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 — 韓愈, 〈師說〉

정말로 훌륭한 울음소리 — 韓愈, 〈送孟東野序〉

누추한 집에 붙여놓은 글 — 劉禹錫, 〈陋室銘〉
세 가지 경계할 일 — 柳宗元, 〈三戒〉
어느 땅꾼의 사연 — 柳宗元, 〈捕蛇者說〉
이하의 누이에게 들은 이야기 — 李商隱, 〈李賀小傳〉

宋代

섬돌 아래서 왕과 다투는 사람 — 歐陽修, 〈上范司諫書〉
〈맹상군전〉을 읽고 나서 — 王安石, 〈讀孟嘗君傳〉
적벽 아래서 영생을 깨닫다 — 蘇軾, 〈前赤壁賦〉
시의 독립성 — 蘇軾, 〈錢塘勤上人詩集敘〉
관중은 뭘 믿고 죽었는가 — 蘇洵, 〈管仲論〉
두 아들의 작명을 밝힘 — 蘇洵, 〈名二子說〉
역사의 역설 — 張耒, 〈書五代郭崇韜傳後〉